(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第102輯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1・10・11구역)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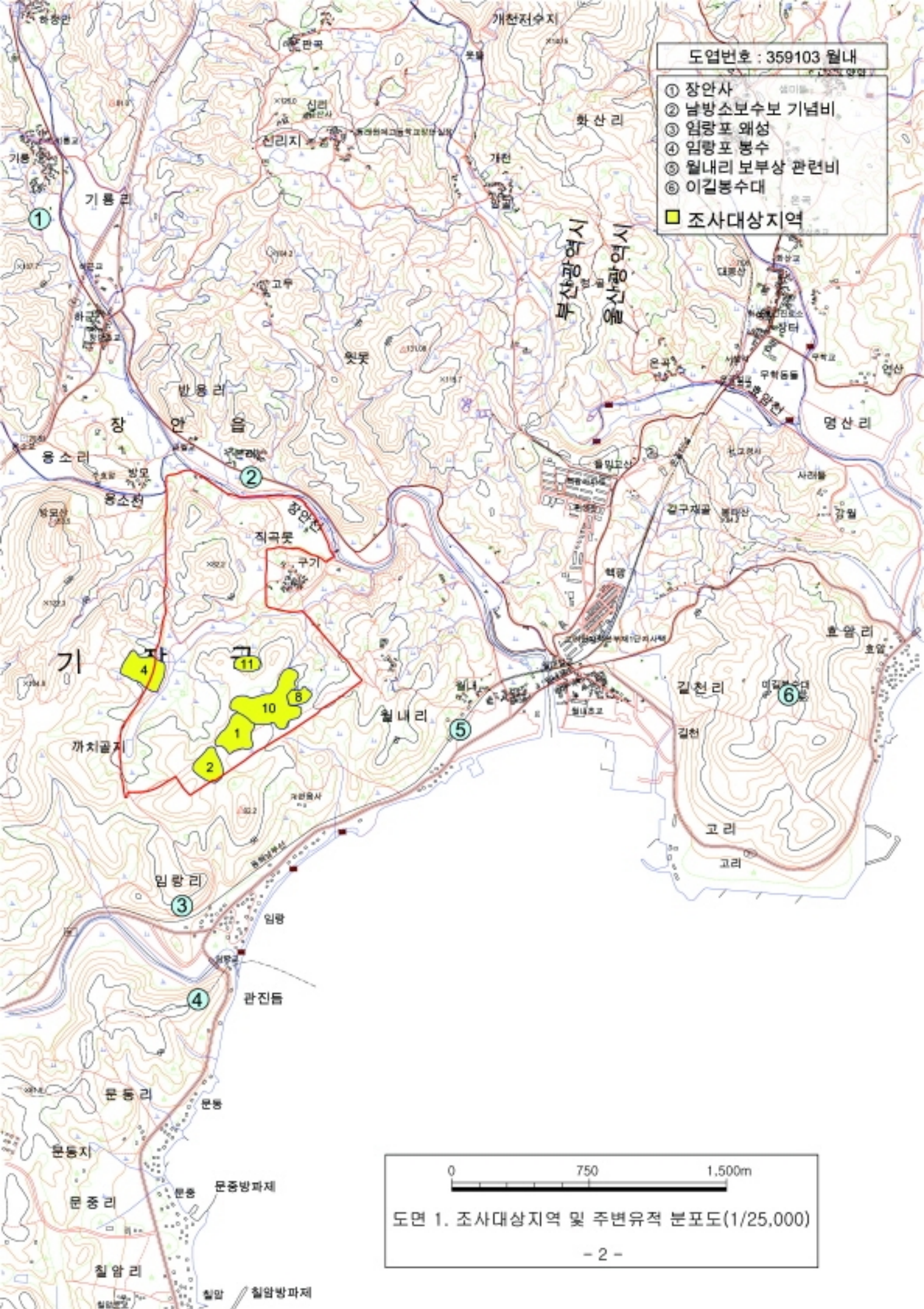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2007. 9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Foundation of East Asia Cultural Properties Institute



도판 1. 조사대상지역 현황도



도면 1. 조사대상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경남문화재연구원 조사지역
한국문물연구원 조사지역
기 조사대상지역
금회 조사대상지역

미이장묘 밀집구역

녹지보존구역

0 150 300m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1/5,000)

Ⅰ. 조사개요

1. 조사명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1・10・11구역) 유적 발굴(시굴)조사

2. 조사대상 지역 및 면적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595번지 일원(101,436㎡)

- 시굴조사 : 1구역(월내리 유물산포지Ⅰ - 29,706㎡)
- 표본시굴 : 10구역(월내리 표본시굴대상지 - 61,210㎡)
- 입회조사 : 11구역(반룡리 입회조사대상지 - 10,520㎡)

3. 조사기간

2007년 5월 30일 ~ 2007년 9월 1일

4. 조사기관

(재)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5. 조사단 구성

◦ 조 사 단 장 : 신용민(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 지 도 위 원 : 정징원(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문화재위원)
임효택(동의대학교 교수, 시문화재위원)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시문화재전문위원)
◦ 책임조사원 : 배덕환(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 조 사 원 : 김판석(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전임연구원)
◦ 보 조 원 : 이상용(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김정호(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송준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윤전화(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6.조사의뢰기관

부산도시공사

Ⅱ. 조사경위 및 목적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룡리 595번지 일대에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이다. 이 지역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당시의 지표조사는 기장군 전체에 걸쳐 실시되어 유적의 존재만 확인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 후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대상부지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친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이 채집되어 사업시행 이전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의 유무에 따른 보존대책 수립 및 향후 공사 진행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Ⅲ. 조사대상지역 주변유적

1. 주변의 문화유적

1) 장안사(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 37호)

불광산이 자리한 장안읍 장안리 598번지에 위치한다.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원효대사가 척판암(擲板庵)과 함께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원래는 쌍계사(雙溪寺)라 하였다가 애장왕 10년(809년)에 장안사로 이름을 고쳤다. 창건 당시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고, 조선후기에 중건된 대웅전과 요사채, 응진전, 명부전 등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석재물로는 오층석탑과 석등, 부도 5기(其)가 있는데, 오층석탑은 근래에 조성한 것이고 석등은 대웅전 앞의 윗부분이 부서진 채로 남아있다. 부도는 절터 주변에 있던 것을 최근에 절의 동북쪽 대숲으로 옮겨 한 곳에 봉안하였다. 장안사는 지방문화재 제 118호로 지정되었다가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된 뒤인 1995년에 부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 37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2) 남방소 보수보기념비

장안읍 반룡리 반룡마을 입구에 마을 표시석과 나란히 서 있다. 석비로서 이수는

없고 방형대석만 있으며 비의 크기는 118×31×11㎝이다.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세워진 것으로 1939년에 이 지역에 가뭄이 들어 흉작이 되자 새로이 저수지를 축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3) 임랑포 왜성

장안읍 임랑리에 자리한 방모산의 동남쪽 말단부(해발 70m)에 본성(本城)이 위치하고 남쪽 철길 건너 임랑강 주변의 돌출된 구릉에 지성(枝城)이 위치한다. 이 성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선조 25년(1592)에 축조된 것으로 모리 요시나리(毛利吉成), 시마즈 다다도요(島忠), 아키즈키 타네나가(秋月鍾長), 이토 스케타카(伊東祐兵), 다카하시 모토테네(高原元種) 등 규슈(九州) 출신의 장군들이 축성하여 근거지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은 주변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지만, 동남해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바다와 접한 전면이 급경사이며 노대는 외벽을 70×40×30cm 정도의 석재를 이용하여 쌓았는데, 모서리의 흉배는 직선을 이루고 있다.

노대의 북쪽으로는 건황이 아래쪽에 나 있고 동북쪽으로 북벽과 남벽이 나란히 좁아져 길이 25m의 평면 재두원추형의 외곽이 돌출되어 있다. 노대의 남동쪽에 길게 뻗어 있는 동벽에서 출입구가 꺾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성의 성벽은 너비가 약 3m 정도로서 3단의 석축이 70°의 경사를 이루며 남아 있고 바깥에 60×40×50cm 크기의 돌로써 두께 2.5m 가량의 석축을 덧대어 증축하였다.

지성의 경우 완전히 멸실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1995년 부산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 의해 중심부 흔적이 현재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임랑포 봉수

임랑면에 위치한 임랑교의 서쪽 산지 정상부에 자리한 관방유적(關防遺蹟)으로서 임랑포왜성과 인접해 있다. 봉수대는 서쪽에서 완만하게 내려오는 능선의 끝자락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동북쪽과 북서쪽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절벽이다. 봉수의 규모는 동서 약 8.5m, 남북 약 10m로서 잔존하는 외벽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북의 직경이 다소 긴 말각방형(末角方形)의 형태를 띠고 있다. 1단만이 잔존하는 외곽석은 가로 120cm, 세로 60cm 크기의 석재로 쌓았고, 하부에 기단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봉돈(烽墩)은 높이 약 2m, 남북 6m, 동서 5m 내외의 규모인데, 외곽의 기단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에 소성실(燒成

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쪽 끝부분은 외벽석에서 약 2.3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다른 곳보다 폭이 넓어 화구(火口)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5) 월내리 보부상 관련비

월내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3기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보부상과 관련된 많은 내용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후기 이후의 상업활동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좌우사반수배상기휼상영세불망비(左右社班首裵常起恤商永世不忘碑)

3기의 비석 가운데 좌측에 위치한다. 이수는 없고 방형대석이 있으며 비의 크기는 103×33.5×11cm이다. 광무 8년(1904)에 세워진 것으로 보부상 조직의 직책명인 반수(班首), 부반수(副班首), 주사(主事), 접장(接長), 감역(監役), 공원(公員) 등이 기록되어 있어 보부상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2) 통정대부배공상기창숙장학비(桶政大夫裵公常起刱塾奬學碑)

비석들의 중앙에 위치한다. 이수는 없으며 방형대석 위에 126×45×16.5cm의 석비가 자리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기가 일제강점기에 보부상조직을 유지하면서 장학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통정대부배공상기창계휼리비(桶政大夫裵公常起刱契恤里碑)

3기의 비석 중 우측에 위치하며 이수는 없고 방형의 대석 위에 100×43×11cm의 크기로 세워져 있다. 1913년에 건립된 것으로 배상기가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도 보부상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내동 서리를 중심으로 계를 창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보부상 조직체계 및 지역 상업과 관련한 활동상도 기록되어 있다.

Ⅳ.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역은 기장군 기장읍에서 울산 방향으로 14번 국도를 따라 약 3㎞ 정도 가면 60번 지방도와 분기점인 좌천교가 나타난다. 이곳에서 다시 60번 지방도로를 따라 동쪽 임랑방면으로 약 2.6㎞ 떨어진 월내역의 서쪽 구릉지대에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중 1구역(월내리 유물산포지Ⅰ), 10구역(월내리 표본시굴대상지), 11구역(반룡리 입회조사대상지)가 위치한다. 조사는 편의상 각 지구별로 지형에 맞게 15m 간격으로 폭 3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10구역의 경우는 표본시굴 대상지역이지만 자연지리적 환경상 유적이 입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15~30m 간격으로 폭3m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일반 시굴조사에 가깝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1) 1구역(월내리 유물산포지Ⅰ)

까치골 소류지에서 남쪽으로 180m 가량 가다보면 동쪽으로 갈라지는 비포장 길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750m 가량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근·현대 분묘 수십기가 군집을 이루고 있던 지역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595번지에 해당하며 주변일대는 설상대지로서 남동쪽이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구릉지대 경사면에 해당하며 북동쪽 사면은 개간 후 최근까지 배 과수원과 논으로 경작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지형을 고려하여 경사면을 따라 15m 간격으로 폭 3m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전반적인 토층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구릉 능선부는 표토 하 5~10㎝에서 적갈색 풍화암반토 및 회백색 암반토가 바로 노출되고, 경사면은 크게 3개층로 구분되는데, 적갈색 사질점토(표토층), 암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풍화암반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다. 표토층인 적갈색 사질점토는 구릉 능선부의 적갈색 풍화암반토가 비, 바람 등으로 풍화되어 쓸려 내려온 것으로 판단된다.

총 36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선시대 초막(草幕)으로 추정되는 수혈 1기만 확인되었다.



도판 2. 트렌치 전경



도판 3. 트렌치 전경



도판 4. 34트렌치 토층전경(북→남)

· 수혈 1호(조선시대)

1구역 북서쪽 구릉 사면에 위치한다. 수혈의 남동쪽은 삭평이 심하여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잔존상태로 보아 평면형태는 타원형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잔존길이 317cm, 잔존너비 200cm, 잔존깊이 27cm이다.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바닥은 암반층을 정지하여 사용하였다. 내부시설로는 벽구와 부뚜막이 조사되었는데, 부뚜막과 연결되는 북서쪽 돌출부는 배연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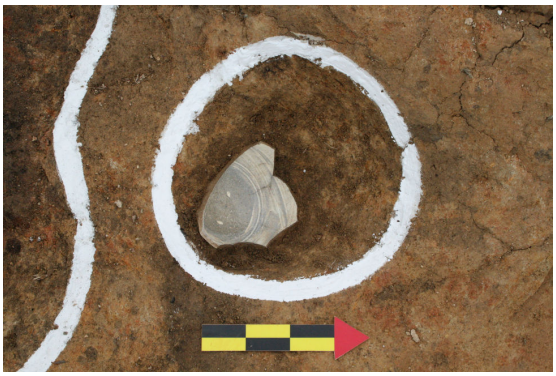
수혈 남동쪽에는 초석(礎石)을 놓은 폭 46cm의 주혈과 부뚜막 북쪽에 연접하여 폭 22cm의 주혈이 배치되며 수혈 외부인 북동쪽에는 폭 20cm내외의 주혈 5기 및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구상유구가 잔존하고 있다. 유물은 부뚜막 북쪽 주혈 내부에

서 귀얄문분청사기 저부편 및 수혈 바닥면에서 귀얄문분청사기편, 도기편이 출토되어, 16세기대로 편년가능하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수혈은 아산 명암리 조선시대 1·8호, 논산 중리 6호, 경산 현내리 6·9호, 포항 인덕동 14호, 울산 부곡동 5지구 6호, 함안충의공원 1호 등 일정한 지역권 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혈의 경우 당시의 초석기단 건물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일시적인 거주지인 초막(草幕)으로 추정된다.



도판 5. 수혈주거지 1호 내부노출 전경



도판 6. 내부 주혈① 노출 상태



도판 7. 출토 유물

2) 10구역(월내리 표본시굴대상지)

근·현대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는 1구역와 연접하며 임도를 사이에 두고 남동쪽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반룡리 산 151-4번지와 월내리 산 45-7·8번지에 해당된다.

표본시굴대상지역이지만 자연지리적 환경상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시굴조사에 가깝게 조사를 하였다. 비교적 완만한 구릉 능선부를 따라 주트렌치를 설치하고 양사면으로 15~30m 간격으로 지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트렌치를 설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토층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구릉 능선부는 표토하 5~10㎝에서 생토층인 적갈색 풍화암반토 및 회백색 암반이 바로 노출되고, 경사면은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되는데, 적갈색 사질점토(표토층), 암갈색 사질점토, 적갈색 풍화암반토가 순차적으로 노출되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15트렌치에서 청동기시대 합인석부 1점만 출토되었다.



도판 8. 15트렌치 전경(서→동)



도판 9. 합인석부(合刃石斧)



도판 10. 43트렌치 토층 세부(남→북)



도판 11. 53트렌치 전경(북동→남서)

3) 11구역(반룡리 입회조사대상지)

조사대상지역은 북쪽에 자리한 해발 70~72m 내외의 구릉 사이에 위치한 안부(鞍部)에 해당되는 곳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반룡리 660·662번지 일대이다. 지표조사 당시 도기편이 수습되어 반룡리 입회조사대상지로 명명된 곳이다.

조사는 지형을 고려하여 경사면을 따라 15m간격으로 폭 3m의 트렌치를 설치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적인 토층양상은 지표 하 5~20㎝에서 생토층인 적갈색 풍화암반토가 노출되었으며, 지표나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유구 및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판 12. 1트렌치 전경(서→동)



도판 13. 6트렌치 전경(북→남)

Ⅴ. 조사결과 및 조사단의견

조사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반룡리 59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이다. 1995년과 1998년 부산대학교박물관, 2004년과 2005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에서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추정되어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전에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 현장조사는 각 구역별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해 트렌치를 설치하여 매장문화재의 유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구역의 토층상태는 기본적으로 지표 하 5~10㎝에서 생토층인 적갈색풍화암반토 및 회백색암반이 노출되었다.

2. 1구역(월내리 유물산포지Ⅰ)에서는 조선시대 수혈 1기가 조사되었다. 내부에는 부뚜막, 벽구 등이 설치되었으며 유물은 귀얄분청사기편과 도기편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등을 볼 때 15C중반~16C중반에 해당하는 초막(草幕)시설로 추정된다. 그 외 10·11구역에서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3. 금번 시굴조사 결과, 1·10·11구역에서는 조선시대 수혈 1기 외에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역내 산재하는 근·현대 분묘군에 대한 이장조치가 완료되는데로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財)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現場說明會 第102輯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내(1·10·11구역) 유적

發掘(試掘)調査 現場說明會

인 쇄 일 / 2007년 9월 09일
발 행 일 / 2007년 9월 10일

編輯·發行 / 財團法人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630-810 경남 마산시 양덕동 96-20
동문빌딩
TEL : (055) 265-9150~2
FAX : (055) 265-9154
E-mail : feaci03@hanmail.net